

G-Welfare Weekly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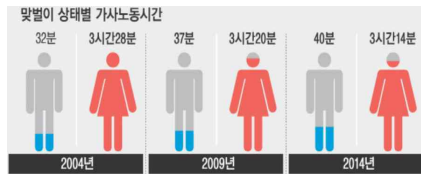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복지부, 2월부터 토요일 근무 금지 시행

01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35/여)의 과로사를 계기로 2월 1일부터 주말근무 중 토요일 출근을 전면금지하고, 모성보호 제도 활용을 단계적으로 시행
 - 사망한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출장과 야근에 주말 근무가 이어지면서 과로사한 것으로 알려짐
 - 복지부는 우선, 토요일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원천 차단하고, 불가피하게 일요일 출근 직원은 그 사유를 부서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 임신초기 12주와 출산 직전에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하는 '모성보호시간제' △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 하는 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 자녀가 12개월 이하일 경우 하루 1시간씩 육아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제')
 - 복지부는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재충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 이라고 하였으나, 제도보다는 야근이 일상화된 직장문화, 여성이 독박쓰는 양육책임이 더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
- 세계 최하위 수준의 일·가정 양립 지표는 우리나라 워킹맘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육아와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의 '맘고리즘' 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 맘고리즘(momgorithm)은 엄마(mom)와 알고리즘(algorithm)의 합성어로 '한번 엄마가 되면 평생 엄마가 되어 육아와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작동방식' 을 풍자한 신조어로 경향신문에서 명명
 - OECD(2015)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과 삶의 균형 지표는 33위이고, 한국경제연구원(2014)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자본 점수'는 28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이러한 낮은 지표는 일주일에 평균 3.6번 야근하고, 퇴근 후에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워킹맘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것
 - 특정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실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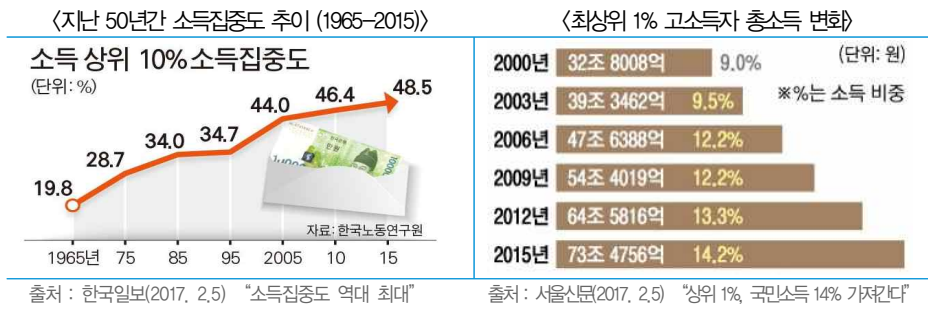
02 경기도 시사점

- 워킹맘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보육·교육 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의 도립어린이집 설치 도비지원, 운영비도·시비 매칭), 돌봄 사각지대(초등 저학년 방과 후 시간 등)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품앗이 도입 등 보호시스템 구축

2. 소득상위 10%, 소득집중도 48.5% 역대 최고치 갱신*

01 주요 내용

- 소득 상위 10%집단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5%로 역대 최고 수준**
 - 2015년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소득집중도가 전년도 47.9%보다 0.6%포인트 높아진 48.5%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미국 5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소득 상위 1% 이상 고소득자는 전체 소득의 14.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한 해 1억 2,67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 1명이 14명 몫의 소득을 점유한다는 의미
 - 최상위 1%를 제외한 1.1%~10%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0년대 이후 변화가 없어 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외환위기 이후 소득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저임금 일자리,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
 - 50년 전 1965년 19.8%이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1980년대 33~35%를 유지하던 것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 2000년 36.4% → 2005년 44.0% → 2010년 46.4% → 2015년 48.5%로 증가
 - 20세 이상 3,867만명 중 22%가량은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로 나타났으며, 무소득자를 제외하고 분석한 자료에서도 중간값이 1,600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가 매우 많음을 시사하며,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양산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소득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었음을 의미
-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위 10%의 소득증가보다는 중산층의 소득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세습과 자녀세대의 절망이 더 큰 문제로 작용
 - 상위 1%의 소득경계값은 1억 2,670만원, 5%는 7,150만원, 10%는 5,000만원. 무소득자를 제외한 소득중간값은 1,600만원으로 중산층의 소득부진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
 - 특히, 부모가 소득 하위 10%이거나 소득 상위 10%인 경우 자녀들도 그 계층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90%로 소득불평등이 세대 간 전이될 수 있다는 점***
 - 이로 인해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더 잘살 것 같다' 는 경제적 기대지수****가 -16으로 30개국 중 최하위로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02 시사점

-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조세 시스템 개편 등 보다 실질적인 소득불평등 해소 전략 필요
 -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공부문에 취업한 사람은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복지기관을 포함해도 7.2%에 불과한 반면, OECD 국가의 공공부문 평균 고용률은 20.1%(덴마크 35%)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증가 및 일정소득 보장 필요
 -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자본소득격차와 임금소득격차가 모두 작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세시스템을 개편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조세 시스템 구축 필요

*홍민기(2017).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비중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기반으로 국내 20세 이상 전체인구의 노동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의 합산

**YTN(2017.2.17) 수저계급? 조선 후기 보다 불평등 심하다

***부모세대보다 더 잘살 것 같다는 응답률과 못살 것 같다는 응답률의 차이('2017 딜로이트 말레널 서베이 보고서,)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 시군별 소득분배 현황

지난해 경기복지재단이 실시한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31개 시군별 소득 분배 현황을 비교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총소득 100조 6,269억 원 중 26.2%가 소득 최상위 집단 (소득상위10% 가구)에 집중**
 - 또한 도내 소득 상위10% 가구와 하위10% 가구 간 소득의 격차는 5.61배로 나타남
- 세 가지 소득분배지표를 통해 시군별 소득분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주·가평·양평 등 농촌지역,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복합된 고양·성남의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남
 - 소득집중도·10분위배율·지니계수 모두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데, 여주·가평·양평·고양·성남의 경우 세 지표의 값이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큼
 - 도내에서 소득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시흥·오산·하남·부천, 지니계수가 낮은 지역은 안산·오산·시흥·연천으로 나타남

<표> 시군별 소득집중도, 10분위배율, 지니계수 비교 (2016년)

	소득 총계	상위10% 소득 소계	소득집중도	10분위배율	지니계수
경기도	10,066,268,724	2,633,387,625	26.2	5.61	0.333
가평군	39,592,370	12,637,671	31.9	5.77	0.374
고양시	1,008,101,242	270,584,534	26.8	6.67	0.363
과천시	70,620,403	19,935,705	28.2	5.56	0.351
광명시	229,427,520	70,057,358	30.5	5.83	0.370
광주시	224,475,086	57,503,084	25.6	5.44	0.316
구리시	158,063,378	42,119,572	26.6	5.94	0.328
군포시	240,550,647	58,422,813	24.3	4.71	0.312
김포시	236,779,922	61,043,721	25.8	5.40	0.329
남양주	505,366,889	123,869,056	24.5	4.70	0.312
동두천	69,037,747	18,973,166	27.5	5.77	0.351
부천시	634,990,574	141,953,169	22.4	4.58	0.296
성남시	833,293,304	231,184,506	27.7	6.25	0.361
수원시	1,058,163,458	254,774,185	24.1	4.73	0.306
시흥시	371,787,215	80,272,971	21.6	4.62	0.280
안산시	587,715,179	136,037,984	23.1	3.65	0.273
안성시	97,335,582	25,844,711	26.6	5.24	0.328
안양시	491,092,295	122,349,239	24.9	5.39	0.324
양주시	165,272,626	42,370,680	25.6	5.61	0.334
양평군	76,360,536	23,655,117	31.0	5.46	0.363
여주시	67,396,685	21,568,973	32.0	6.58	0.388
연천군	21,794,889	5,743,566	26.4	3.85	0.292
오산시	175,032,115	38,068,610	21.7	3.79	0.275
용인시	770,487,411	203,521,803	26.4	5.89	0.329
의왕시	129,841,410	40,969,358	31.6	5.00	0.378
의정부	294,215,204	77,890,330	26.5	4.80	0.312
이천시	106,408,427	27,214,086	25.6	4.77	0.317
파주시	288,338,856	73,414,797	25.5	5.00	0.333
평택시	369,821,115	89,274,719	24.1	5.21	0.311
포천시	92,190,504	28,187,745	30.6	4.24	0.336
하남시	133,343,299	29,498,138	22.1	4.46	0.296
화성시	519,373,037	123,630,954	23.8	6.15	0.324

*경기도민 총 30,918명(18,572가구) 대상으로 조사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는 소득이 가구단위로 조사되어,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작성된 노동연구원의 소득집중도와 차이 존재

(단위: 만원, %)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행사명	주요내용
경기도 대학생 재능기부 봉사단 발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7. 2. 17.(월) 11:00~16:30 • 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 내 용 : 재능기부 봉사단 위촉장 수여 및 팀별 활동기획안 발표 등 • 참 석 : 대학생 봉사단·교수·컨설턴트 등 관계자 170명

03

FACT CHECK

사라진 개천의 용, 다시 나올 수 있을까?

- 최근 한 교육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9년 사이 최고치인 24.2만원을 기록*
- 지나친 사교육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쟁적 교육구조는 공교육 외 투자(사교육)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 문제는 부모세대의 교육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자녀세대의 교육기회를 확장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계층대물림이 발생하는 데에 있음**
 - 월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초등자녀 학습시간과 월소득 200만원 가구 초등자녀 학습시간 차이가 66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1분을 학교 외 학습시간(학원 등)이 차지
 - 즉, 부모가 학원 등 사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학습량이 증가하고, 부모의 계층에 따른 학습시간은 다시 교육성취를 통해 관찮은 일자리 취업으로 연결
- 이러한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최근 유력 대선주자들이 사교육 폐지·교육부 폐지·서울대 폐지·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등 파격적인 교육공약을 잇따라 발표
 - 역대 대선에서도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계속 거론되어 왔으나, 이번이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약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요에 의해서 생기는 사교육을 공급을 통해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 우려***
-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는 사회가 더 중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5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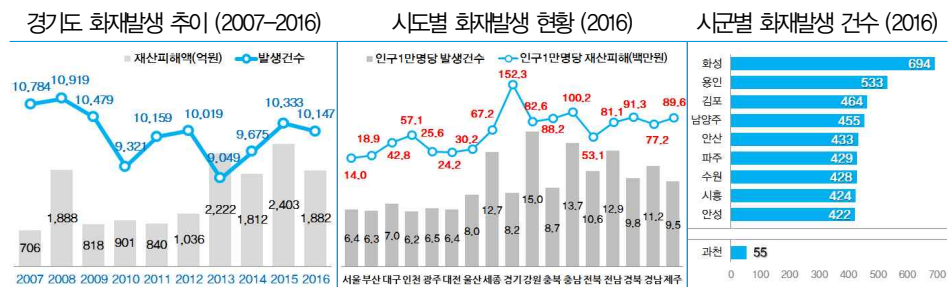
**MK뉴스 (2017.02.06). "한국사회 불평등, 가장 심각한 이슈는 '교육격차'였다"

***매일경제 (2016.02.06). "'사교육·교육부 없앨 것...이성적 공약만 늘어남'

04

통계로 보는 복지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



자료 :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홈페이지(왼쪽, 가운데), 뉴스1 2017-01-31 보도자료(오른쪽)

- 경기도에서는 지난 10년 간 약 10만 건, 한 해 평균 1만 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해 기준 화재발생건수는 10,147건,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는 1,882억 원
 - 화재 발생건수는 10년 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액은 대형화재 발생여부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를 보임
-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는 강원도가 인구 1만명당 15건으로 가장 높고 인천시가 6.2건으로 가장 낮음. 경기도는 지난해 인구 1만명당 8.2건의 화재가 발생(전국 여덟 번째)
 - 그러나 재산피해액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인구 1만명당 1억 5천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
- 도내 31개 시군 중 화재발생 최다지역은 화성(694건), 화재발생 최소지역은 과천(55건)임